

① 사회 불평등 현상이란 무엇일까?

3.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

(1) [⑥ 기능론]

① 기본 입장 :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의 유지와 존속 및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현상임.

② 전제 : 직업의 기능적 중요도(중요성) 차이 인정(☞ 직업마다 기능적 중요도에 차이가 있음)

→ 차등 보상 필요

☞ 기능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어야 하므로
사회적 자원을 차등 분배하는 것이 당연함.

→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, 직업의 사회적 기여도 등에 따라
사회적 희소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한 결과로,
사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불가피함(필요한 것, 당연한 것).

③ 희소 자원의 분배 기준 :

• 대부분 사회 전체 구성원의 [⑥ 합의]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된 것임.

☞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임.

④ 사회 불평등 현상의 영향(사회적 기능) : 희소 자원의 차등 보상은

사회 유지와 존속 및 발전에 기여함.

•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, 직업의 사회적 기여도 등에 따라
사회적 희소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한 결과(☞ 희소 자원의 차등 보상의 결과)로 발생함.

→ 불평등한 사회적 대우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있음.

• 개인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.

⑤ 한계 :

•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정당한 것으로 여겨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음.

• 기득권층에 유리한 사회 구조를 간과할 수 있음.

cf) 데이비스(Davis, K.)와 무어(Moore, W.)의 계층 이론 ☞ 기능론, 차등적 보상에 따라 나타나는
사회적 불평등은 합리적 자원 배분의 결과로서 보편적이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함.

[2] [㉞] **갈등론**]

① 기본 입장 : **사회 불평등은 불공정한 것이므로**

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**해결해야 할 현상임.**

☞ 사회 불평등 현상은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 극복되어야 할 현상임.

② 전제 : 직업의 기능적 중요도 차이 부정

(☞ 직업의 기능적 중요도에 차이가 없음

→ 직업의 기능적 중요도는 지배 집단의 판단에 불과함.

직업의 기능적 중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음 → 검증 불가능)

→ 사회 불평등 현상은 **사회적 희소 자원**이

직업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**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불공정하게** 분배된 결과로, 보편적일 수는 있지만

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.

③ 희소 자원의 분배 기준 :

-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 아니라 **[㉞] 지배 집단**의 가치가 반영된 것임.
- 권력이나 사회적·경제적 배경 등에 의해 사회적 희소 자원이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불공정하게 배분됨. ☞ 부모의 소득과 학력 등 가정 배경(환경)이나 권력에 따라 차등 분배됨.

④ 사회 불평등 현상의 영향(사회적 기능) : 사회적 희소 자원이 불공정하게 분배된 결과이며,
집단 간 **대립과 갈등**을 초래하여 사회 발전을 저해함.

- 기존의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재생산함.
- 개인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.
- 집단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함.

⑤ 한계 :

-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것이 사회적인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음.
- 집단 간 갈등과 대립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.

(3) 바람직한 관점 ☞ 관점의 조화와 균형(균형적 관점의 필요성) :

- 기능론이나 갈등론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
두 관점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조화로운 관점을 지닐 때
사회 불평등 현상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.
☞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은 일정한 유용성과 함께 한계를 지니므로
두 관점을 조화하여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함.